

고흥군, 농어촌버스 미개설노선 개통

과역 독대~슬항간 확포장...11억원 사업비 투입

토지소유자 11명 설득...15년 만에 토지사용 승락

고흥군은 과역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과역 독대~슬항간 군도 18호선 미개설 구간 720m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9월 18일 개통식을 가졌다.

금번 개통된 과역 독대~슬항간 도로는 농어촌버스가 하루 4회 왕복 운행하고 있는 주요 노선임에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등 지역 주민은 물론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었다.

송기근 군수는 과역면민과의 대화에서 본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

어 사업을 조속히 시행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 군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11명을 수차례 방문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15년 만에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냈다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가 개설되자 지역주민들은 협소한 도로에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비단 오면 배수체계 불량으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되었다면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고흥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이 1차선으로 미정비



되어 차량 교행이 어렵거나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정비에 필요한 남양장담~월악간 도로 확포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차선 확포장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양시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마련됐다

복지증진·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광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박말레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광양시 소재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요양 기관장으로 하여금 고용된 요양 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요양 요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박말레 의원

시장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박말레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도울이 필요’란 어

르신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은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박 의원이 흡연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추석연휴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총력

공공시설 10월 11일까지 중단... 이동자제·방역강화

보성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20일까지 있었던 공공 다중이용 시설 중단을 다음달 11일(479개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9개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내 종교시설(102개소)에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56개소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을 위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반, 해외입국자 이송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자가격리자 관리와

지역민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전방위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달 초부터 명절 귀성객과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SNS를 비롯한 현수막, 서한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객지에 있는 자녀가 방문하지 않기로 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350명)들에게는 추석 음식배달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추석 ‘추모의 집’ 예약제

오늘부터 여수시홈페이지 신청 가능

여수시가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올 추석 추모의 집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제례단과 성묘객 휴게실을 전면 폐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석이 인구의 대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영락공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왔으며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 추모의 집 2개소에 제례단과 유가족 휴게실을 부득이하게 전면 폐쇄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예약제에 한해서 추모의 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추모의 집 이용 희망자는 21일부터 여수시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에서는 영락공원 방문 자제와 미리 성묘하기, 최소 인원 성묘(10명 이하) 등 안전 성묘 수칙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동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업무협약

순천시·서울대 Mg기술혁신센터·전남테크노파크 공동



순천시가 최근 순천시청에서 서울대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순천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

시장과 서울대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 신광선 센터장,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지, 건물, 장비 등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고, 참여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연관기업 유치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5월 추진 예정이었던 수송기 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9월에 한국산업기술평진원으로부

터 추진주체 및 사업계획 등이 최종 승인되었다.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주체인 순천시와 재료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전남TP가 업무협약을 통해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 신정훈 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소병철, 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금속재료학회, 재료연구소,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외국인 친화도시로 조성

광양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도시 광양’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광양시는 항만도시 특성상 외국인 선원이 많고 세계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와 관광, 취업 분야에서 방문·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글

로물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관계기관·단체 간담회,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소통, 적응, 융합, 자긍, 친화 5단계의 과정을 담은 △외국어 인프라 △생활지원 △사회융합 △봉사참여 △시민의식 개선 등 총 5개 분야 2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